

100만 어린이 불자 다 어디로?

새싹포교 위기...소처럼 똑심 있게 미래의 씨앗 심자

"아이를 낳고 절에 가고 싶어도 법회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가지 못했다. 지금은 다섯 살된 아들과 가끔 절에 가면 무섭다며 가지 싫어한다." 두 아이를 키우는 서울 개포동 이은정(38) 불자는 아이와 함께하는 신형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울 흥은동 박영선(42) 불자는 "어느 날 애가 학교에 다녀오더니 '학교에서 종교조사를 하는데 불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기가 불교를 믿으면 교실에서 왕따를 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새싹포교가 위축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라 아니지만, 불자 가운데 어린이법회 참석자가 1만 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이불자 및 지도자 육성단체인 동원(이사장 지현) 관계자는 "현재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어린이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어린이는 6000명 가량"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어린이법회 개설 사찰 200여 곳에 법회 참석인원을 2~3명으로 감안한 수치다. 포교원(원장 해홍) 역시 "250여 사찰의 어린이법회 참석인원을

20~100명으로 추산해 1만 여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통계청의 연령별종교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5~14세 어린이 불자는 100여 만명이다. 2000만 불자인구의 0.05%에 불과한 100만 어린이 불자 수는 처치하고도, 전체 어린이 불자 가운데 1/100만 어린이법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사직전의 어린이 포교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포교원도 사대의 심각성을 일찍이 파악해 2007~2009년을 어린이·청소년 포교기간으로 선정했다.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 지도자 양성과정 개설 △'청소년법회자료집', '어린이법회자료집' 발간·보급 △'불자·마법 삼국유사 등 애니메이션 제작·방영 △어린이 포교 종합사이트 '키즈불자' 오픈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올해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 도량'을 선정해 시·군·구별로 종단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3년째를 맞이한 오늘, 이와 같은 노력에도 종단적 관심과 지원 부족 등 어린이법회 정착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교육 환경변화에 대처 해야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바쁘다. 학원가기도 바쁜 아이들이 따로 시간을 내 법회에 참석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 법회는 '놀러간다, 쉬러간다'는 인상이 강해 학부모부터 선택권이 불자 수에 차지 않고도, 전체 어린이 불자 가운데 1/100만 어린이법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사직전의 어린이 포교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영어법회 등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법회를 운영 중인 자우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은 "어린이영어법회에서 영어와 동시에 불교를 접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사교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법회 등 불교행사가 사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가 영문 자타카암송대회와 기초불교영어강좌 등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좋은 예다.

불교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대중적인 법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전문가는 "농

이촌체험 텀플스테이'와 같은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어린이법회 외부우스의 고리를 이라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부족도 문제다. 무명 스님(도림사)은 "어린이법회를 진행하려 해도 지도교사를 구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부족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어린이법회 침체의 결과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린이법회 출신이 다시 지도교사로 활동해 후배아이들을 지도하는 체계에서 온 필연적인 과보"라며 "지도교사 육성을 계속 소홀히 하면 2020년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지도교사의 불합리한 처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는 "어린이법회 지도사 80%가 자원봉사자로 불과 10~30만원 보시금을 받는다. 이들의 불시에만 호소해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동원 관계자는 "신도회·거사림과 연계한 후원회 및 강사파견, 동문회 조직화 등 외부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싹포교 제도·정책 마련 절실
현장활동가 중에는 "개설된 어린이법회 수가 부족한 것은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의지와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는 이들도 있다. 어린이법회를 하면 시끄럽고, 돈도 안되고, 귀찮다는 생각에 일부 스님들이 어린이법회를 꺼린다는 이유다. 어린이법회는 장기적으로 미래 불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인재발사다. 뒤늦게나마 포교원이 2007년부터 어린이법회 개설지원을 위한 6개팀을 운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2009년은 조계종의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마지막 해다. 도량마다 전진불이 뛰어놀고, 이들이 자라 불교를 외호하는 인재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던 어린이·청소년 포교정책이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 첫 번째 정책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미래 불교의 동량이 될 어린이 불자를 키우는 일이 천불(千佛) 만불(萬佛) 조성에 버금가는 대작불사인 까닭이다.



재미와 감동으로 업그레이드

지상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불황과 갈등의 사회,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공경'에서 찾습니다. 현대불교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의 정신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지상 캠페인을 통해 공경의 가르침을 생활화 하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불교의 세계화는 한국불교가 당연한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촌의 불교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국의 불자들이 알아야 할 움직임을 포착해 드립니다.

이웃종교는 지금...
2008년은 어느 해 보다 종교적 갈등이 심했던 해였습니다. 종교편향의 극복은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불자라고 하여 이웃종교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이 또한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천도교 등 이웃종교의 '지금'을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도소설-혜암 스님 이야기
근스님들의 일대기를 소설로 재구성해 '법의 바닷물'을 길어 올리는 정찬주 작가의 야심찬 구도소설 '가야산 정진불'이 713호부터 본격 연재됩니다. 두타행의 모범을 보였던 혜암 스님(조계종 제10대 종정)의 수행역정을 살필이 취재하고 문도와 인연제자들을 인터뷰 한 정찬주 작가의 웅혼한 이야기와 새로운 화풍으로 불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최문정 화백의 그림이 독자여러분을 새로운 구도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시가 있는 도량
시는 '말씀(言)의 도량(寺)'입니다. 한 편의 불교시를 통해 깊고 그윽한 깨달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화장세계'면에 새롭게 '시가 있는 도량'을 건립했습니다. 매주 불교의 가르침과 정서를 담은 시(선시, 시조, 동시 포함) 한 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성으로 가는 부도발기행
부도(浮屠)는 고승의 유골을 안치한 석조물입니다. 선종의 전래와 함께 조성되기 시작해 '법'의 상징으로 존재해 온 부도는 고승의 무덤이면서 '말 없는 말'로 '길 없는 길'을 설하는 법신이기도 합니다. 고찰의 외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도밭을 임연태 기자가 시인의 눈과 구도자의 가슴으로 찾아갑니다.

복지, NGO 지면 확대
새로운 소식과 읽을거리가 강한 현대불교는 복지 분야와 NGO 활동 분야의 소식을 대폭 확대해 보다 신선한 보도로 독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특별기획 불황·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③생활속의 사경수행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 8면



정진과 봉사로 한해 마무리 2008년 종교편향문제 해결에 앞장선 시국법회추진위원회(공동대표 수경)가 올해 한 해를 참회정진과 봉사활동으로 마무리했다. 추진위원회 소속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구립 30일 조계사에서 '108배 참회정진'을 한 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봉사와 식기세척봉사를 실시했다. 이어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을 법사로 간단한 송년법회 및 모임을 갖고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 정진·봉사로 한해 마무리

올 한해 종교편향문제 해결에 앞장선 시국법회추진위원회(공동대표 수경)가 올해 한 해를 참회정진과 봉사활동으로 마무리했다. 추진위원회 소속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구립 30일 조계사에서 '108배 참회정진'을 한 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봉사와 식기세척봉사를 실시했다. 이어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을 법사로 간단한 송년법회 및 모임을 갖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박재원 기자

금주 신문 24면 발행

첫서피막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동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술 향산화 원액 100%"
청다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정지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회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중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